

37

김정윤
한양대(ERICA) 광고홍보학과
(경기 권선고)

2026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

팬의 시선에서 기획자의 시선으로 광고 홍보에 눈뜨다!

좋아하는 아이돌의 무대와 콘텐츠를 즐겨 보면서도 소속사의 콘셉트와 홍보 방식에는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었다. '나라면 어떻게 기획하고 홍보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마케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고1 때까지 뚜렷한 진로를 정하지 못했던 정윤씨는 학교 수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심을 구체화하며 광고홍보학과 진학을 꿈꾸게 됐다. 좋아하는 아이돌을 바라보는 팬의 시선에서 기획자의 관점으로 한 걸음 나아간 한양대(ERICA) 광고홍보학과 정윤씨를 만났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사진** 이의종

좋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기획의 꿈

고1 때까지 정윤씨는 뚜렷한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던 언니를 보며 심리학을 친근하게 느꼈고, 심리상담을 직업으로 삼는 것도 잠시 생각했다. 부모님은 심리학보다는 실용적인 학문이나 진로를 찾아보길 바랐다.

"마케팅을 진로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꽤 많아 관심을 갖게 됐어요. 마케팅이 뭔가 근사하고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생활 속에서 다양한 광고를 접하면서 '나라면 이런 느낌의 광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아이돌 그룹 세븐틴을 정말 좋아하는데, 2023년쯤 〈손오공〉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세븐틴은 제게 여전히 청량하고 멋진 아이돌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소속사가 그런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해 아쉬웠어요. 마케팅 전략이 이게 최선인가 싶었죠."

정윤씨는 좋아하는 세븐틴을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지, 어떤 콘셉트로 대중에게 다가가면 좋을지 상상하곤 했다. 팬의 입장에서 느낀 아쉬움은 자연스럽게 기획과 홍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학교 활동에서 찾은 진로 스토리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이나 진로를 빨리 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를 고민하고, 그 관심을 확장할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을 자신의 스토리로 채워가느냐, 누구나 참여하는 특색 없는 한 문장으로 학생부에 남기느냐는 본인이 하기에 달렸죠."

정윤씨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길거리에 버려진 음료 컵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고민하고, 동아리에서는 국내 기업 광고의 특징을 비교했다. 진로 독서와 독서 토론을 통해 공익 광고와 숏폼 콘텐츠 등으로 관심을 확장했다. 처음에는 친구를 통해 마케팅에 관심을 가졌지만,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여러 활동을 거치면서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광고 기획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휴대폰으로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하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광고를 접하게 돼요. 자주 노출되는 광고가 과연 제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제품을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광고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제품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짧고 강렬한 광고가 늘어나면서 숏폼 콘텐츠와 긴 이야기를 담은 광고에도 관심이 커졌죠."

교과에서 배운 내용, 생활 곳곳에서 만나는 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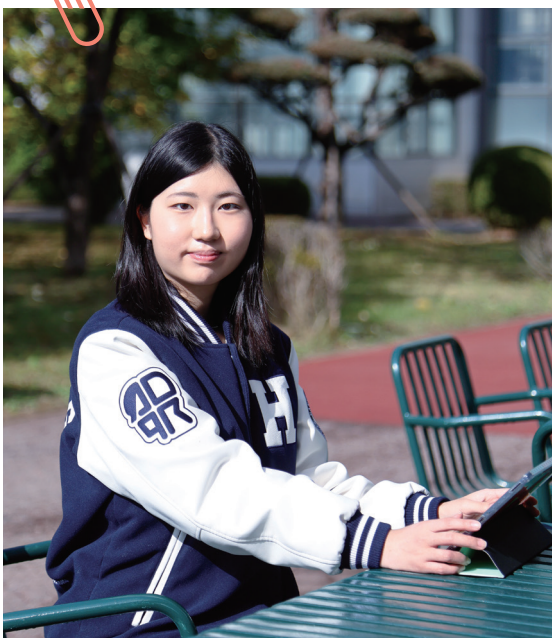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과 이론은 교실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상이나 사회적 이슈를 이해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정윤씨 역시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과 연결하면서 공부의 재미를 발견했다.

"공부가 사실 재미있지만은 않지만 영어와 일본어는 공부한 만큼 성적도 잘 나와 공부할 맛이 났죠. 사회 교과목도 재미있었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이나 이론,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실제 생활에서도 접할 수 있었으니까요. 특히 〈정치와 법〉은 정치 관련 뉴스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교실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한 일이에요.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은 결정문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이었죠."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과 지식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졌다. 고1 〈통합과학〉에서는 분리 배출 시 떼어야 할 라벨과 관련해 '라벨 프리 제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탐구했다.

"고 1때 〈통합과학〉에서는 라벨 프리 제품에 집중했다면, 고 3때 〈생활과 과학〉을 배우면서는 우리가 자주 마시는 제로 음료에 주목했어요. 제로 음료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의 유해성 논란 등 제품의 이면을 탐구했죠. 아스파탐이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정윤씨는 제로 음료를 둘러싼 탐구를 통해 제품의 장점을 부각하는 마케팅 전략뿐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과학적 사실과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에도 관심을 가졌다.



다양한 분야 관심은 기본, 기획력과 추진력도 중요

마케팅은 관심이 깊어질수록 알아야 할 분야도 배워야 할 내용도 많아진다. 소비자 심리와 제품에 대한 이해는 물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기획력과 실행력, 협업 능력도 필요하다.

"요즘 컬래버레이션 마케팅이 유행이잖아요. 컬래버 마케팅에 대한 관심과 구매력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설문 대상자를 확보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 연령대를 고려하지 못했어요. 한 친구가 어머니 지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많이 받아왔는데, 탐구 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로 그분들은 컬래버 제품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결국 10~20대를 대상으로 급하게 길거리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 변수 하나가 결과를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탐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며 기획의 중요성을 배웠다. 수시에서는 광고홍보학과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화콘텐츠학과, 자율전공 모집 단위에 지원했다. 경쟁률과 합격선이 높은 학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심 있는 분야를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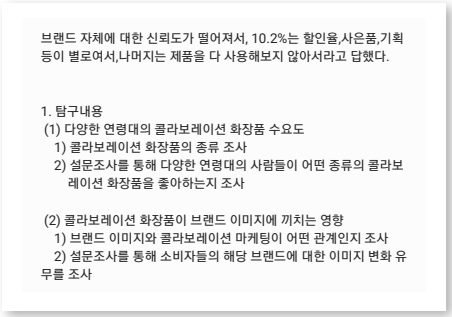
"광고홍보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해요. 기획부터 제품에 대한 이해, 사람의 심리까지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지금은 복수전공이나 다른 전공을 고민하기보다 광고홍보학과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요. 종합전형을 준비했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진심을 담아 학교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라도 더 배우고 새로운 궁금증도 생겨요. 그런 과정은 자연스럽게 학생부에도 드러나더라고요."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보고서. '밀리의 서재' 앱이 다양한 연령대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안했다.



〈생활과 과학〉 시간에 발표한 제로 음료 관련 마케팅 보고서.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10.2%는 할인율,사은품,기획 등이 별로여서,나머지는 제품을 다 사용해보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1. 탐구내용
(1) 다양한 연령대의 콜라보레이션 화장품 수요도
1) 콜라보레이션 화장품의 종류 조사
2)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콜라보레이션 화장품을 좋아하는지 조사

(2) 콜라보레이션 화장품이 브랜드 이미지에 끼치는 영향
1) 브랜드 이미지와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이 어떤 관계인지 조사
2)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변화 유무를 조사

컬래버레이션 화장품의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한 설문지.

나를 성장시킨 모교의 특색 활동

독서 토론을 비롯한 독서 프로그램

"학년별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학년 때는 도서관에서 진로 맵 만들기 활동을 했고, 2학년 때는 진로 독서 활동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알게 됐어요. 이 과정에서 미디어 생산의 한 사례로 광고를 접하면서 공익 광고와 광고 기획에 관심을 갖게 됐죠. 3학년 때는 독서 토론 활동으로 '숏폼 시대, 긴 스토리가 효과적일까?'라는 주제를 다뤘어요. 당시 공익 광고나 스토리가 있는 광고에 관심이 많았는데,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면서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어 의미 있었어요.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토론과 여러 활동으로 생각을 확장하면서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도 도움이 됐어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1학년 **〈수학〉** '함수를 활용하는 마케팅'을 주제로 실생활에서 수학적 개념이 적용된 사례를 찾아 작성함. 마케팅 데이터를 함수로 분석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이해함 **〈영어〉** 언어적 지식이 풍부하며, 자신이 아는 내용을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남

2학년 **〈문학〉** 〈만세전〉 〈모닥불〉을 공부한 뒤 일제강점기를 다룬 영화를 찾아 작품에 나타난 전쟁의 참상을 발표함 **〈윤리와 사상〉** 영화로 철학 일기 쓰기 활동에서 〈미션 임파서블〉을 선정해 등장인물의 행동을 철학적 사상에 비춰 분석함, 철학적 개념을 대중문화를 통해 창의적으로 해석함

3학년 **〈확률과 통계〉** 국가통계포털 탐색 활동에서 '광고 노출이 소비자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통계 자료를 분석함 **〈심리학〉** 소비자 행동에 심리학 이론을 적용하는 실용 학문인 광고심리학에 관심을 가짐 **〈일본어회화 I 〉** 광고 분야에서 애니메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일본의 문화콘텐츠가 국제적으로 성공한 요인을 조사함

의미 있었던 선택 과목

■ **〈정치와 법〉**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방송을 수업 시간에 시청했다. 평소라면 어렵게 느꼈을 결정문을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어 인상 깊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공부한 보람을 느끼게 해준 과목이다.

■ **〈세계사〉** 사회 교과 중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다.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과 사건, 각국의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특히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았다.

■ **〈영어〉 〈일본어〉** 평소 언어에 흥미가 많았고, 성적도 가장 좋았다. 다양한 영어 교과목과 〈일본어〉 〈일본어회화 I 〉를 공부하며 다른 나라의 언어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사회를 이해할 수 있었다.